

◎ 興德王陵碑片三個發見

五月十三日 慶州中學校鄭 銑先生과 崔禎苾 洪再善兩君에 의하여 同陵 龜趺周邊에서 大小三片이 收拾되었다.

- (1) 口歲「田苗口」乃疲(一三×二二cm)
- (2) 行「奉(九·〇×一〇·五cm)
- (3) 皇「木(七·五×七·五cm)

◎ 慶州佛像의 調査

滯韓中의 馬蘭樹(Kurt Robert Matusch)夫妻 一行은 五月十五日부터 十八日까지 四日間 慶州博物館을 비롯하여 南山全城과 斗笠里磨崖佛 仙桃山三尊像等을 調査하였는데 朴泳道氏가 同行하였다.

◎ 慶北大의 古書書展覽會

開校十週年을 紀念하여 同校博物館에서 (五月二五日—二九日)開催되었다는바 出品點數는 合計四三點

刊 行 物

「梨大史苑」第四輯(四月二十日發行)揭載論文

孫景穗：韓國十二支生肖의 研究

Mrs. Harriet C. Matusch(馬蘭樹夫人)著：Ornamental Roof Tiles of Korea
東亞出版社 四月 十五日刊 九、〇〇〇卷

石窟庵 通信 (五)

鄭 明 鎬

雨期를 앞두고 假屋蓋 工事は 五月末日로서 完成되었고 從前의 벽집은 撤去하

第三卷 第六號 通卷二十三號

로서 外觀을 一新, 이 工事로 말미암아 石窟自體의 被濕을 防止함과 同時에 將 次의 本工事に 對備케되었다. 벽집 外被를 除去하므로서 窟內의 溫濕의 差度가 縮減되는 現象이 먼저 注目되어 調査를 進行中, 寺址發掘은 小規模로 繼續中인데 現庵前方에서 舊河床을 追跡하였으며 既出의 建物址 後方에서는 五月二五日 佛像彫刻片一點 二六日에는 地下二尺에서 完形의 高麗靑瓷杯一點 (그中一點은 入絲된 優品)이 發見되고 다시 그 밑에서 瓦積層이 露出되었다. 石窟後方의 排水 工事も 順調롭게 進行되어 水位는 계속 降下되고 있으며 岩壁側에서 새로운 湧水處가 發見되므로서 石窟側에서의 湧水現象은 減退 乃至 停止되어 가고있다. 氣象測候는 서울氣象臺에서 새로借用된 移動溫濕器에 의하여 補強하였다. 六月二日 慶北大博物館長一行三名 上窟一泊하고 現場視察.

— 第三卷 第七號 通卷二十四號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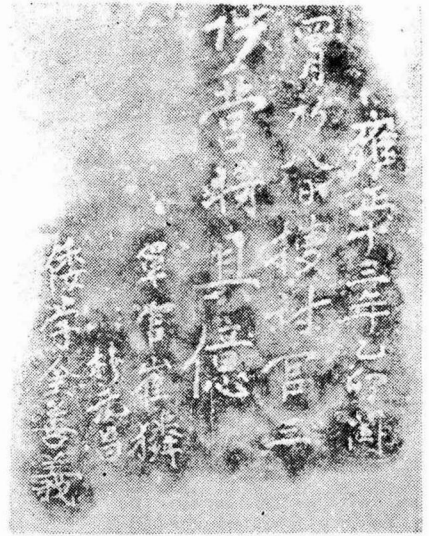
鬱陵島搜討官關係碑 一一

李 弘 植

一九三七年(日帝昭和十二年)十一月二十日 鬱陵島 道洞 築港工事場에서 碑石二個가 發見되었는데 두 個가 다 搜討官의 踏驗記이며 筆者에게는 解放後入手된 拓本이 있어서 여기에 그 全文을 紹介하고자 한다. 이 拓本은 日帝時代 初期의 慶州博物館長을 했던 諸鹿央雄이 藤田亮策教授에게 보낸것인데 그 拓本中 一枚에는 다음과 같은 同人의 自筆로 推測된 手記가 있어서 그 發見場所가 明示되어 있다.

昭和二一、一一、二〇、鬱陵島道洞築港工事場舊漁業組合倉庫跡發見二個內其二

昭和二三、七、二二手拓



그런데 또 하나의

拓本에는 「手拓於島

廳」이라고 하여 있

으니 發見되자 島廳

으로 옮겨서 保管시

킨 모양이다. 鬱陵

島를 調査한 일이 있

는 金元龍氏에 問議

한즉 島廳에서 본記

憶이 있다고 하니 지

금도 여기에 健在한

것으로 믿는다. 余談

이 지마는 諸鹿史雄은 當時 事故로 因하여 博物館을 물려서서 浦項의 漁業組合理事長을 하고 있었으니 鬱陵島와 連絡이 便利하였다고 볼 수 있다. 其中 一石은 積고 年代도 確實하니 이것을 其一로 하고 또 하나를 其二로 하며 拓本에 依하여 兩碑의 大小도 大略 測量하여 보았는데 兩石이다 舟形光背石 같다

其一 高 四七 cm 底幅 三七 cm 上幅 一九 cm

雍正十三年乙卯閏

四月初八日搜討官 三

陟營將 具 億

軍官 崔 麟

朴元昌

倭學 金善義

雍正十三年은 英祖十一年(一七三五)이며 實錄에 의해 正月 十三日條에 江原監司 趙最壽의 上啓에 依하여 搜討官을 보내기로 하였다 하니 符合된다.

其二 高 七五 cm 底幅 五七 cm 上幅 三四 cm

辛卯五月初九日到泊于

都沙工崔粉

倭紅倉以爲日後憑考次

萬里滄溟外將軍駕彩舟

孛生仗忠信履險自無憂

搜討官折衝將軍三陟營將

兼僉節制使朴錫昌拙句刻

石于卯方軍官折衝朴省三

折衝金壽元

倭學閑良朴命逸

軍官閑良金元聲

江陵通引金蔓

營吏金嗣興

軍色金孝良

中房朴一貫

及唱金時云

庫直金危玄

食母金世長

奴子金禮發

使令金乙泰

여기의 辛卯年은 언제 일까. 鬱陵島가 高麗時代에서 李朝時代를 通해 서 政策上으로 住民入居를 禁止하고 空島로 放置하였는데 이것으로 因하여 日本의 漁民이 자주 該島에 出入하게되자 壬亂後 光海君六年(一六一四)을 前後하여 巴야호로 兩國間에 이 심을 둘러 쌓고 係爭問題로 되었다. 그후 肅宗十九年에서 二十三年에 걸쳐 다시 問題가 紛糾되어 特히 安龍福事件이 中心이 되어 對馬島主와 날카롭게 對立되어 肅宗二十年 二月에는 我國의 強硬論者 領中樞府事南九萬이 역시 入居를 嚴重히 하고 一,二年을 問하여 搜討하도록 上奏하여 王이 이에 從하였다고 實錄에 나왔으며 소王 卅一年六月에는 鬱陵島를 搜討하고 回還하던 李海軍官이 淪死하였다는 記事도 보인다. 搜討官의 初出이 언제 인지 갑자기 알 수 없으나 李朝初期의 世宗, 成宗 兩代에도 該島空曠을 爲하여 住民放逐을 하였으니 이 政策을 持續하기 爲해서는 때때로 搜討使派遣도 있었을 것이나 역시 搜討官을 頻繁히 보내게 된것은 上記와 같이 肅宗二十年以後로 볼 것이다. 그렇다면 이 碑石의 辛卯年은 肅宗三十七年辛卯(一七一) 또는 그以後로 잡아야 할 것인데 여러가지 느끼는바에 依하면 역시 肅宗三十七年이 아닐까 생각된다. 當時鬱陵島海域擔當은 江原道水軍僉節制使가 하게 되어 있고 職啣은 三陟浦鎮이 營將이 兼하게 되어 있었다. (大典會通). 鬱陵島搜討에 있어서는 倭學이 반드시 隨伴되고 있는 것과 또 全島에 倭紅倉이라는 名稱이 있는 着船所가 있었던 모양이니 우리의 注意를 끈다. 이 辛卯年의 碑는 當時의 一行全員이 列名된 듯하여 興味있

다. 沙工은 더 많았을 것이나 여기는 都沙工만 代表해서 列名하였을 것인데 奴子 使令에 이르기까지 記名시킨 것은 生命을 걸고 이 섬에 온 一行에게 自然히 생긴 團合心과 親近感에서도 나온 것이 아닐까 何如튼 글씨나 碑石이나 素樸한 것이나 鬱陵島史의 資料로서 重要함에는 틀림없다.

바리의 高麗鐘

崔 淳 雨

지난 한 겨울을 巴里에서 보내는 동안 Ceruschii博物館長 Eisseff氏와 함께 同博物館 地下倉庫를 살살이 뒤져본 일이 있었다.

이 博物館에는 아직도 整理되지 않은 遺物이 적지 않고 이 未整理 遺物中에 혹시 韓國遺物이 섞여 있거나 없을가 하는 것이 우리의 期待였다.

이 建물이 아직도 Ceruschii氏의 豪華로운 邸宅이었을 무렵에는 아마

도 이 倉庫는 芳醇한 삼관이나 葡萄酒통들이 쟁겨 있었던 땅판이었던듯 아직 도술향기가 가지지 않은 듯한 느낌은 筆者의 好酒僻 때문만이였을까



第三卷 第七號 通卷二十四號

은 金屬遺物들이 ぱ악이 드러서 있었고 이들 잡동산의 틈에 끼어 우리 高麗鐘一個가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는 먼지를 만진 헛수고를 면한 셈이었다.

이 鐘은 總高三一·五cm 鐘身高二五cm 口徑二二cm 口緣 두께三cm의 小鐘이었으며 多幸히도 數字에 達하는 다음과 같은 點刻銘文이 있어서 注意를 끌게했다.

至大四年 辛亥二月 日

智峯且閑

香徒清信戒女等

造上藥師菴小鐘

鑄成□□□□富

同願

□□女

加叱同

이상 至大四年 辛亥은 元武宗四年 西紀一三二一年에 該當하며 이 刻文이 元來 字劃이 稚拙不分明해서 缺字들을 모두 判讀할 수 없었음은 유감이었다.

